

어린이 프로그램 평가 및 제작 환경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 부모와 제작진간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김 기 태 (Kim, Ki-tai) *

(E-mail : kkt0007@daum.net)

논문접수일 : 2011년 4월 1 일

논문심사일 : 2011년 4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1년 5월 17일

* 학위취득대학 : 서강대학교

현직: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어린이 프로그램 평가 및 제작 환경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1)

: 부모와 제작진간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문요약>

본 논문은 갈수록 방송 현장이나 연구 영역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및 제작 환경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행한 어린이 프로그램 평가 및 제작 환경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결과이다. 즉,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을 가장 가까이서 평가할 수 있는 두 집단으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집단과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자 집단을 설정하고 먼저 이들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정도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한 부모 407명과 제작진 65명의 프로그램 평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 전체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이용한 응답 결과 두 집단 모두 평균보다 약간 높은 만족률(부모: 3.204, 제작진: 3.266)을 보였으나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장르별로는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제작진들이 부모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시사교양물의 경우는 부모들이 제작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실태 및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첫째, 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량에 있어서는 제작진들이 부모들보다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의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시간량에 대해서는 부모들에 비해 제작진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셋째,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들의 예상 만족도에 대한 응답 결과 부모들의 예상 만족도

가 제작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부모와 제작진 간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 다양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다양하지 못하다는데 동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부모와 제작진 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일부 장르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고, 제작 실태 및 환경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제작 환경, 어린이 방송

I.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논문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의 중요한 당사자 집단인 부모와 제작진 간 어린이 프로그램 평가 및 제작 실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즉,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정도를 비롯하여 제작 실태나 환경에 대한 인식 비교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개선 또는 발전 과제 추출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시행된 연구이다. 따라서 당사자인 어린이들의 프로그램 평가 정도나 제작 실태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린 자녀의 시청 지도를 가장 가까이서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모와 제작진을 비교 연구 대상을 삼았다. 대부분 어린이들의 텔레비전 시청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시청에 대해서는 부모 집단이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이 TV시청 지도나 중재 등 가정에서의 미디어교육은 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조연하·배진아, 2010). 아울러 갈수

1) 이 논문은 2010년 한국방송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록 어린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나 관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지니고 있다. 오늘날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도 어린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열악한 제작 환경을 비판하는 문제제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평가 자료 축적과 이를 토대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오늘날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이나 홀대는 우리 사회의 어린이 또는 어린이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나 실종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모두 어린이는 사랑하지만 어린이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데는 소극적인 편이다.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는 여전히 소수자이고 소외 계층이다.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위상은 낮고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환경은 열악하다(김기태 2009). 가정에서부터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 그리고 놀이방, 놀이터 등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갖가지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있을 터이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관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만은 분명하다.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각종 미디어 특히 텔레비전에서의 어린이 위상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 평가 및 제작 실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텔레비전 시청 습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관찰과 평가에도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부모 집단과 제작자들의 어린이 프로그램 및 제작 실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1.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평가 연구

방송 프로그램 평가는 크게 시청률로 대변되는 양적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평가로 나뉜다. 시청률 평가와 질적 평가는 평가의 목적이나 활용도에 따라 각기 그 유용성이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제작 실태와 환경 인식 조사라는 연구 목적 상 질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방송 프로그램 질적 평가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한 기관은 방송위원회였다(유홍식·조형숙 외 2008).

방송위원회는 영국의 기존 관련 연구결과를 기초로 ‘수용자 반응조사지수(Appreciation Index)’ 즉, AI지수를 개발하였다. 이어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들도 각 방송사들 주도로 프로그램 평가지수를 개발하였는데, 한국방송(KBS)은 1995년 ‘공익성지수’(Public Service Index: PSI)를 개발하였고, 문화방송(MBC)은 2001년에 ‘품질지수’(Quality Index: QI)를, 그리고 한국교육방송(EBS)은 ‘교육방송 프로그램 품질평가지수’(EBS Program Evaluation Index: EPEI)를 개발하였고 2006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EPEI 보정지수를 추가 개발하였다. 한편, 서울방송(SBS)은 민영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평가 지수로 ‘시청자만족지수’(Audience Satisfaction Index : ASI)를 개발하였고, 2004년 방송위원회는 다시 <방송법> 31조에 근거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편

성, 운영을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방송평가지수’(KBC Index: KI)를 개발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작업을 계속해 왔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의 방송 프로그램 평가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방송 프로그램이 단순한 평가의 차원을 넘어 방송 제작진의 제작 능력과 방송사 자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이다. 단순 시청률에 의해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사가 평가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태도, 만족도 등 정성적 평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지수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 질적 평가 개발이나 연구의 수준에 비해 어린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지수 연구나 만족도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특정 연구의 일부로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 연구 결과가 있을 뿐이다(송종길 2008; 이호영·윤성옥 2010). 이에 비해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이나 선정성 등 텔레비전의 역기능적 폐해를 찾아내거나 강조하는 내용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한근태·하승태 외 2007).

2.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 연구

지난 5년 동안 각 방송사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정리해 본 결과, 지상파 3사에서는 해마다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줄고, 어린이들이 볼 수 없는 시간대에 편성해서 원천적으로 시청권을 박탈하는 등 어린이 시청자를 무시하는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태 2009). 아울러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장르 편중현상은 날로 심각해져서 어린이들의 시청 편식을 유도하며,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성인프로그램으로 내몰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

은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지상파 방송사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편성량 추이 분석 결과는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KBS-2TV와 EBS를 제외하고는 전체 방송 시간 대비 약 3% 내외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KBS-1TV는 2008년 11월 현재 2.7%로 가장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KBS-2TV의 경우는 교육방송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어린이 방송 편성비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KBS 전체로 보면 다른 방송사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김기태 2009). 이를 방송사별로 보다 세분화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시간(편성량) 추이 분석 결과(2004년-2008년)
(단위:%)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KBS-1TV	275분(3.3)		290분(3.6)	275분(3.3)	225분(2.7)
KBS-2TV	440분(5.2)	445분(5.4)	400분(4.8)	600분(7.1)	550분(6.5)
MBC-TV	275분(3.3)	285분(3.4)	310분(3.7)	310분(3.7)	300분(3.6)
SBS-TV	325분(3.9)	325분(3.9)	300분(3.6)	295분(3.4)	240분(2.9)
EBS-TV	2,400분(28.6)		3,270분(38.9)	3,600분(43)	3,490분(41.5)

출처: 서울YMCA, 어린이 프로그램 모니터보고서(2004-2008) 참조

*하루 총 방송시간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지상파 3사와 EBS는 오전 06:00부터 다음날 오전 02:00까지 총 20시간(일주일 전체방송분 8400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선 KBS의 경우, 2007년 봄 개편 부터 본격적으로 KBS-1TV와 KBS-2TV 어린이 방송프로그램의 시청 대상과 시간대의 차별성을 둔 편성을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KBS-1TV는 오랫동안 유아 어린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TV유치원 하나 둘 셋>이 아침편성에서 사라지고, 오후 4시~5시 대에는 초등학생을 시청 대상으로 하는

학습 구성물들이 편성되었다. 아침프로그램인 <TV유치원 하나 둘 셋>이 폐지된 이후, 주중에는 아침시간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대신 토요일 오전 7시~8시 사이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편성은 고정편성이 아닌 유동적인 편성이고, 어린이가 TV 시청을 많이 하게 되는 일요일 편성은 여전히 시도되지 않고 있다. 2008년 가을개편에는 토요일 오전 7시40분~8시 30분까지 5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과워퀸텀맨>이라는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과 <후토스>라는 유아 대상 구성물을 재방하는 형식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KBS-1TV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3.3%에서 현재 2.7%로 낮아졌고, 이 수치는 상업방송을 표방하는 SBS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로 인해 주중에는 유아 및 어린이의 TV 시청 시간에 대한 선택의 폭도 지상파 3사에서는 없어진 결과이다.

한편, KBS-2TV는 유아 대상 프로그램과 어린이 대상 오락프로그램을 묶어 어린이 시간대 <아이 뚜뚜>가 신설되어 차별성을 이루고 있다. <아이 뚜뚜>의 시간대는 오후 4시~6시까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특히 KBS-2TV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조금씩 줄여왔으나 2007년 이후 200분을 늘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2007 KBS 대기획 어린이와의 약속>이라는 프로젝트의 실천으로 어린이 시간대 <아이뚜뚜>를 신설하여 어린이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과 편성을 늘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11월 현재 편성비율을 놓고 보면 지상파 방송 3사 중 가장 높은 6.5%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7년 7.1%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제작하려는 의지가 가장 강력한 채널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MBC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지난 5년 동안 변화가 많았다. 한때, 어린이프로그램을 주 3일로 대폭 축소하기도 하였고, MBC의 대표적인 유아 어린이프로그램인 <뽀뽀뽀>가 여러 차례 존폐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이는 MBC의 어린이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 편성된 프로그램만을 보더라도 그 선별기준과 어린이 프로그램으로서의 방향성 차원에서 모호함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MBC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현황에서도 나타나지만, 평균 3.3%~3.7%를 유지해오다가, 2008년 11월 현재는 3.6%로 2007년 보다 약간 줄어든 상황이다. 편성비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MBC는 점점 어린이 시청자를 소외시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업적 공영 방송인 MBC의 위상과도 맞물려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SBS-TV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1991년 말 개국 당시 505분(9.3%)이라는 많은 시간을 어린이 시청자에게 할애하면서 오락성을 추구하는 애니메이션과 퀴즈프로그램, 그리고 <스타와 만나요>와 같은 어린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들을 자체 제작해 파격적인 편성을 한 바 있었는데 이는 어린이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방송사들이 본격적으로 상업성을 추구하는 분위기를 타면서,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현저히 줄어 2007년 3.6%, 2008년에는 2.9%로 까지 대폭 줄어 든 상황이다. 뿐만이 아니라, 방영되는 어린이 프로그램 수도 3개로 줄었다.

마지막으로 EBS는 KBS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서,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생산하고 방영해야 하는 교육방송이다. 그동안 이러한 특성을 살려 <지식채널 e>와 같은 참신한 교육 콘텐츠들을 선보였고, 시청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어린이 방송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 꾸준히 연구하고 제작해 온 결과,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어린이 프로그램의 보고로 자리 잡고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편성은 종일방송 실시 이후 오전 7~10시대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집중 방송하고, 이를 오후 3~7시에 재방송하는 교육방송 EBS만의 편성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EBS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에 비해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아 대상 프로그램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러한 편성 경향은 종일방송이 실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

난 2004년 28.6%였던 데 비해, 2008년에는 41.5%까지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주일동안 방영하는 전체 프로그램 94개 중 56개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점유율이 59.6%에 달하는데 이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송 위상에 대한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결국 현재 EBS는 어린이 전문채널로 인식되고 있으며 부모의 신뢰도 또한 높은 편이다. EBS의 이러한 편성 경향은 경영난을 이유로 유아 프로그램과 수능 및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판매 사업에 열중하는 경영 전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영국 BBC의 2010년 한 해 어린이 채널 운용비용은 약 1억 2,500만 파운드(한화 약 2,500억 원)에 이르고, ITV의 경우는 약 2,500만 파운드(한화 약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재원, 2009). 이에 비해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어린이 콘텐츠 개발에 무관심했을 뿐 아니라 현재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집단인 부모와 제작진을 대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 및 제작 실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비교 조사하기로 하였다. 먼저,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흥미성, 유익성, 작품성, 윤리성, 등급구분의 적절성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응답한 결과를 합산하였다.(연구문제1)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대부분 기존 연구들은 다시 세부적인 질문 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직접 만족 정도나 만족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나(이호영·윤성옥 2010) 본 연구에서는 보다 입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질문 항목을 5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이 중 흥미성과 유익성은 대부분 기존 방송 프로그램 평가지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목으로 그동안 방송위원회의 AI·KI지수, KBS의 PSI, MBC의 QI, SBS의 ASI, EBS의 EPEI 측정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유목이었다(유홍식·조형숙 외 2006).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작품성을, 프로그램의 사회 규범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윤리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자율 규제 시스템인 프로그램 등급제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묻는 등급구분의 적절성을 포함하였다. 또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정도는 애니메이션, 종합구성물, 연예오락물, 시사교양물 등 네 장르에 대한 만족도를 합하여 전체 만족도를 산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장르 구분은 한국언론학회 주최, 교육방송 후원으로 이루어졌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연구에서의 프로그램 구분을 따랐다(유홍식·조형숙 외 2006). 설문은 매우만족(5)-만족(4)-보통(3)-불만족(2)-매우 불만족(1)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는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실태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비교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문제2)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량에 대한 평가,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시간량에 대한 평가, 어린이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 만족도,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 평가 등이 포함되었다.

- 연구문제 1 :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1-1 : 어린이 애니메이션 만족도 차이는?
 - 연구문제 1-2 : 어린이 종합구성물 만족도 차이는?
 - 연구문제 1-3 : 어린이 연예오락물 만족도 차이는?

연구문제 1-4 : 어린이 시사교양물 만족도 차이는?

○ 연구문제 2 :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실태 및 환경에 관한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 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량의 차이는?

연구문제 2-2 :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시간량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연구문제 2-3 : 어린이들의 예상 만족도 평가 차이는?

연구문제 2-4 :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 평가 차이는?

2. 조사 대상

이번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은 서울지역 거주 초등학생 학부모 407명과 국내 지상파방송 KBS, MBC, SBS, EBS 어린이 프로그램 PD, 작가 등 제작진 65명이었다.

3. 조사 일시 및 방법

조사는 2008년 10월 한 달 동안에 걸쳐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학부모의 경우는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한 응답 요령을 설명하고 2-3일 후에 응답한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방송 제작진의 경우는 해당 방송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즉시 응답한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4. 조사원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2명과 서울 YMCA 모니터 회원 3명 등 총 5명이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답한 부모의 수는 총 407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14.5%, 여성은 85.5%로 여성이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38.9%), 20대(5.5%)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는 주부가 53.7%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이 18.5%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응답자 특성은 본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어린이'를 자녀로 둔 부모들의 평균 연령대가 30대이고, 가정에서 자녀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모가 어머니라는 점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진 중 설문에 답한 제작진의 수는 총 65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41.5%(27명), 여성은 58.5%(38명) 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9.2%(3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20대(32.3%, 21명), 40대(13.8%, 9명), 50대 이상(4.6%, 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 경력은 10-20년의 베테랑 제작진들이 33.9%(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6년-10년(20.3%), 1년 이하(18.6%), 4-5년(10.2%), 20년 이상(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응답한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상대적으로 방송 경력이 많은 제작진들이 많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의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경력은 1년 이하가 40.4%(23명)으로 가장 높았고, 2-3년이 26.3%(15명)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경력이 낮은 응답자들이 많았다.

<표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부모		제작진		
계		407명		65명		
성별	남	56명(14.5%)		27명(41.5%)		
	여	330명(85.5%)		38명(58.5%)		
연령별	20대	22명(5.5%)		21명(32.3%)		
	30대	216명(54.3%)		32명(49.2%)		
	40대	155명(38.9%)		9명(13.8%)		
	50대이상	5명(1.3%)		3명(4.6%)		
직업별	주부	160명(53.7%)		방송 경력 별	1년 이하	11명(18.6%)
	회사원	55명(18.5%)			2-3년	4명(6.8%)
	교직자	23명(7.7%)			4-5년	6명(10.2%)
	자영업	21명(7.0%)			6-9년	12명(20.3%)
	공무원	11명(3.7%)			10-19년	20명(33.9%)
	기타	28명(9.4%)			20년 이상	6명(10.2%)

2.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연구문제1)

부모와 제작진간 전체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부모와 제작진 모두 평균을 약간 넘는 만족률(부모:3.204/제작진:3.266)을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었다. 즉,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모와 제작진 모두 중간 이상 만족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두 집단 간 인식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애니메이션과 시사교양물의 경우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제작진들이, 반면에 시사교양물의 경우는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장르별로 만족도가 차이나는 이유는 오락물과 교양물에 대한 부모와 제작진간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3>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차이 조사 결과

	응답자	응답자수 (명)	평균	T값	df	유의도
장르 전체	부모	406	3.204	0.743	99.291	n.s
	제작진	63	3.266			
* 애니메이션	부모	406	3.112	-2.260	89.679	P<0.05
	제작진	63	3.273			
종합구성물	부모	406	3.318	-0.669	89.994	n.s
	제작진	62	3.365			
연예오락물	부모	403	2.986	0.661	86.419	n.s
	제작진	59	2.939			
* 시사교양물	부모	403	3.399	4.527	80.635	P<0.001
	제작진	60	3.027			

한편, 이를 다시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별로 나누어 부모와 제작진

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들의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별 만족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어린이 애니메이션, 어린이 종합구성물, 어린이 연예오락물, 어린이 시사교양물 등 네 종류의 장르별로 나누어 각각 흥미성, 유익성, 작품성(완성도), 윤리성, 등급구분의 적절성 등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따라서 모든 항목에서 5점은 매우 만족, 4점은 만족, 3점은 중립, 2점은 불만족, 1점은 매우 불만족이므로 전체 5점에서 1점까지 중 3점을 기준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표4> 부모들의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별 만족도 조사 결과

	애니메이션	종합구성물	연예오락물	시사교양물
흥미성	3.687	3.522	3.251	3.375
유익성	3.097	3.418	2.935	3.565
작품성	3.136	3.221	2.935	3.338
윤리성	2.797	3.222	2.863	3.386
등급구분의 적절성	2.826	3.199	2.928	3.324
전체 만족도	3.112	3.318	2.986	3.399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는 3.112로 약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이 중 흥미성의 경우는 3.687로 가장 높은 반면, 윤리성(2.797), 등급 구분의 적절성(2.826) 등은 매우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즉, 부모들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의 경우 재미는 있으나 윤리적인 문제와 이를 반영한 등급 구분의 차원에서는 다소 불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어린이 종합구성물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3.318로 약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이 중 흥미성(3.522), 유익성(3.418)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등급 구분의 적절성(3.199), 작품성(3.221), 윤리성(3.222) 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어린이 연예오락물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전체 만족도가 2.986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윤리성(2.863) 등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어린이 대상 연예오락물이란 장르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일반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상정하고 이의 윤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어린이 시사교양물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는 전체 만족도가 3.399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유익성(3.565)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결국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린이 프로그램 중 오락물에 비해 교양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작진들의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별 만족도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작진들의 만족도 응답 결과 전체적으로는 3.273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이 중 흥미성의 경우는 3.619로 가장 높은 반면, 윤리성은 2.016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어린이 종합구성물 대한 제작진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는 3.365로 약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이 중 등급 구분의 적절성(3.532), 유익성(3.484), 윤리성(3.403)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작품성의 경우는 3.177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어린이 연예오락물에 대한 제작진들의 만족도는 전체 만족도가 2.939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작품성(2.881), 윤리성(2.864) 등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어린이 시사교양물에 대한 제작진들의 만족도는 전체 만족도가 3.027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흥미성(2.667), 작품성(2.867)은 부정적으로, 윤리성(3.200), 등급 구분의 적절성(3.102)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장르별 만족도 분석 결과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자들도 오락물보다는 교양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부모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5> 제작진들의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별 만족도 조사 결과

	애니메이션	종합구성물	연예오락물	시사교양물
흥미성	3.619	3.226	3.051	2.667
유익성	3.254	3.484	2.898	3.283
작품성	3.286	3.177	2.881	2.867
윤리성	2.016	3.403	2.864	3.200
등급구분의 적절성	2.191	3.532	3.000	3.102
전체 만족도	3.273	3.365	2.939	3.027

3.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실태와 환경에 관한 인식 (연구문제2)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와 제작진들의 제작 실태 및 환경에 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시청하는지,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 시간량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어린이들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량의 차이 분석 결과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량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제작진들이 부모들 보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부모들이 어린이 TV프로그램을 얼마나 시청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가끔 또는 자주 본다고 응답한 부모들이 전체의 62.4%에 달하여 한두 번 본적이 있거나(31%) 전혀 보지 않는다(6.6%)는 부모들 37.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즉, 우리나라 부모들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62.4%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평소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정작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어린이 TV프로그램을 얼마나 시청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가끔(43.1%) 또는 자주(35.4%) 본다는 응답자가 모두 78.5%에 이른 반면, 전혀 보지 않거나(1.5%), 한두 번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제작진은 불과 21.5%에 지나지 않아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전반적으로 어린이 TV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열심히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응답 결과는 부모들의 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량에 비해 서도 월등히 높은 시청량이었다.

<표6>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량 비교 (단위:명(%))

	부모	제작진	
전혀 보지 않는다.	27(6.6)	1(1.5)	$X^2 = 14.965$ df =3 P<0.005
한두번 본 적이 있다.	126(31.0)	13(20.0)	
가끔 보는 편이다.	186(45.7)	28(43.1)	
자주 본다	68(16.7)	23(35.4)	
계	407(100)	65(100)	

2)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시간량에 대한 견해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 시간량에 대한 견해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부모들이 제작진들에 비해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량이 충분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현재 어린이 TV프로그램 방영 시간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은 결과 21%의 부모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9%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우리 부모들은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어린이 TV프로그램 방영 시간량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작진들에게 묻은 결과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진의 15.3%가 매우 또는 비교적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56.9%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여 전반적으로 어린이 TV 프로그램 방영 시간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56.9%

라는 응답률은 부모님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률인 21% 비하면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로 상대적으로 제작진들의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부모들이 제작진에 비해 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들의 TV 시청 자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7>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 시간량에 대한 견해
(단위: 명(%))

	부모	제작진	$X^2 = 56.722$ d.f =4 P<0.001
매우 충분하다.	71(17.5)	1(1.5)	
비교적 충분한 편이다.	127(31.4)	9(13.8)	
중간이다.	122(30.1)	18(27.7)	
부족한 편이다.	78(19.3)	27(41.5)	
매우 부족하다.	7(1.7)	10(15.4)	
계	405(100)	65(100)	

3)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들의 예상만족도 평가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 자신들의 예상 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부모들의 예상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어린이들의 예상 만족도에 대한 부모들의 응답 결과는 58.6% 부모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부모는 불과 12.8%에 지나지 않아 부모들의 예상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어린이들의 예상 만족도를 제작진들에게 묻은 결과 만족하다는 예상(29.2%)과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30.8)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중립적인 응답률을 기록하였는데 부모 대상 설문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불만족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표8>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들의 예상 만족도 평가
(단위:명(%))

	부모	제작진	$X^2 = 31.402$ d.f =4 $P < 0.001$
매우 만족할 것이다.	82(20.2)	0(0.0)	
조금 만족할 것이다.	156(38.4)	199(29.2)	
중간이다.	116(28.6)	26(40.0)	
만족하지 못하는 편일 것이다.	48(11.8)	20(30.8)	
전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4(1.0)	0(0.0)	
계	406(100)	65(100)	

4)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 다양성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 다양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두 집단 모두 다양하다는 의견보다는 다양하지 못하다는 평가에 응답률이 더 높았다. 어린이 TV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을 묻은 결과 응답 부모의 30.7%가 다양하다고 응답한 반면, 38%의 부모들은 다양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 TV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에 대한 제작진들의 생각을 묻은 결과 응답 제작진의 23.1%가 비교적, 또는 다양하다고 응답한 반면, 다양하지 않다고 응답한 제작진은 거의 두 배 가까운 47.7%에 달 해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9>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 다양성에 대한 평가
(단위:명(%))

	부모	제작진	$X^2 = 2.533$ d.f =4 n.s
매우 다양하다.	14(3.5)	2(3.1)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110(27.2)	13(20.0)	
중간이다.	127(31.4)	19(29.2)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139(34.3)	28(43.1)	
전혀 다양하지 않다.	15(3.7)	3(4.6)	
계	405(100)	65(100)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분석 결과 부모와 제작진간 전체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정도 비교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부모와 제작진 모두 평균을 약간 넘는 만족률(부모:3.204/제작진:3.266)을 나타냈다. 다만, 애니메이션과 시사교양물의 경우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제작진들이, 반면에 시사교양물의 경우는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량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제작진들이 부모들 보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 시간량에 대한 만족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부모들이 제작진들에 비해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 방송량이 충분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 자신들의 예상 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부모들의 예상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제작진간 어린이 프로그램 장르 다양성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두 집단 모두 다양하다는 의견보다는 다양하지 못하다는 평가에 응답률이 더 높았다.

2. 본 논문의 한계 및 의의

본 논문은 추후 후속 연구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조사 대상 학부모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과학적 대표성 부족이다. 연구의 현실적 여건 상 임의로 학부모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지역,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샘플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만족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으로 제시한 흥미성, 유익성, 작품성, 윤리성, 등급구분의 적절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전반적인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였지만, 후속 연구 과정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앞에서 제기한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의 맥을 이어가고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 주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정확한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공중파 방송 뿐 아니라 각종 케이블, 위성 그리고 인터넷 방송에 이르기 까지 어린이 채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편성 현황 및 실태를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줄고 있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양적 문제와 연예오락물 등 특정 장르에 치우치는 편성의 오락화 등이 학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실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를 비롯하여 제작비, 제작시스템, 생산성 등 실제 방송 제작 현장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 연구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작 시스템 개선이나 프로그램 발전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관련 연구 분야인데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각종 감시 체제 또는 보호 제도 관련 연구이다.

한편,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관련 논의는 방송 현장의 제작 실무진들과의 공동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런 만큼 방송 현업 출신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와 방송 현장과의 공동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기태, 2009,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실태 분석 및 논의”, 한국방송학회 2009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 김동윤·김주환, 2004,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방송학보』 통권 18-3호, 한국방송학회, pp. 385-431.
- 박선영, 2002, “다매체 시대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다매체 시대의 어린이·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방송위원회, pp. 1245-304.
- 박은희·황성연·심미선, 2008, “청소년보호시간대와 프로그램 등급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22-3호, 한국방송학회, pp. 129-171.
- 박창희, 2002,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어린이·청소년 TV프로그램의 편성 현황과 개선 방안, 『다매체 시대의 어린이·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방송위원회, pp. 161-242
- 배진아·조연하, 2008, “청소년시청보호제도의 가정 내 실천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방송프로그램등급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2-6호, 한국방송학회
-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2010, 『2010년 상반기 어린이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 송종길, 2008, 『어린이·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보호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 유홍식·조형숙·황성연, 2008,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평가지수의 개발과 방향”,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세션 발표논문.
- 이호영·윤성옥, 2010, “어린이·청소년 보호 방송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연구: 편성규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프로그램등급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4-1호, 한국방송학회.

- 정회경, 2002, "다매체 시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방송의 역할".
『다매체 시대의 어린이·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방
송위원회, pp.13-144.
- 조연하·배진아,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가정 내 미디어
이용중재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3호, 한국여성커뮤
니케이션학회, pp.5-35.
- 조연하, 2009, "어린이와 방송규제: 어린이 보호 및 방송 개선 관련
법규정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09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 주재원, 2009, "어린이 콘텐츠의 가능성: In the Night Garden", 『동
향과 분석』 통권297호, pp. 13-21,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언론학회, 2008,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품질평가의 의미",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세션 발표논문.
- 한균태·하승태·서영남·조의현, 2007, "지상파 텔레비전의 어린
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폭력성 연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21-1호, 한국방송학회.
- 홍교훈, 2008, "어린이의 놀이·문화·대화·소통 공간이 되는 미
디어교육", 『사례연구를 통한 어린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방송문화진흥회, 목포MBC시청자미디어센터 공동주최
세미나 발제문

Surve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production environment on children's
broadcasting programs
: Focused on comparisons of perspectives
between parents and producers

Kim, Ki-tai
(Honam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I compare the degrees of satisfaction of parents and producers regarding children's programs. Factors such as interest, helpfulness, completeness, ethicality, and appropriateness of classification were taken into account in calculating the degrees of satisfaction. Although the degrees of satisfaction of the 407 parents and 65 produc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were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statistical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However, in some particular genres such differences were found; for animations, producers were more satisfied than parents; and for cultural programs, the opposite was true.

On the other hand, the attitudes of the two groups toward the production environment of children's programs also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gaps. First, producers tended to watch children's programs more than parents did. Second, compared to parents, producers claimed that the amount of children's programs wa

s insufficient more strongly. Third, producers thought that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children towards children's programs was low, while parents thought that children were content with the programs. Fourth, both groups claimed that the variety of children's programming was low.

I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degrees of satisfaction toward children's programs of parents and producers except in some genres, while such differences were found in attitudes toward the production environment of children's programs.

Keywords : children's program, degree of satisfaction, production environment